

## 『하외십육경(河隈十六景)』과 『하회구곡(河回九曲)』의 공간 형상과 그 의미

신 소 윤\*

### 차 례

- |                                |                           |
|--------------------------------|---------------------------|
| 1. 서론                          | 1) 일상공간에 대한 관심과 흥취 표출     |
| 2.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의 공간 구성      | 2) 선조에 대한 존승과 도학적 공간      |
| 3.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에 나타난 하회의 모습 | 4.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이 지닌 의미 |
|                                | 5. 결론                     |

### 국문초록

본고는 『하외십육경(河隈十六景)』과 『하회구곡(河回九曲)』의 공간 형상과 의미를 통해 17-18세기 영남 지역의 사회·문화적 일경향을 이해해보고자 시도되었다. 두 작품은 각각 점과 선을 통해 하회 일대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하회 일대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더욱이 이 작품들은 하회를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형상화할 뿐만 아니라, 17-18세기의 영남 지식인, 그 중에서도 풍산 류씨들이 당대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했던 일련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는

\* 경북대학교 박사수료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을 분석하여, 두 작품이 같은 공간을 다른 구조 방식을 통해 구성해나가고 있으며, 실제 작품의 내용에서 하회 일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회구곡』은 『하외십육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작품이며, 이러한 영향관계가 있는 만큼 두 작품은 하회를 형상화함에 있어 유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본고는 이를 크게 일상공간에 대한 관심과 흥취 표출, 선조에 대한 존숭과 도학적 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의 의미를 당대 영남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시켜 논의를 전개하였다. 영남의 정치적 소외와 풍산 류씨의 입지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영남 지식인 그 중에서도 풍산 류씨들이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으며, 그 작품의 이면에는 가문의식을 구현하고 또 학맥을 결합시킴으로써 가문의식을 확장하려는 작가의 창작의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하외십육경(河隈十六景)』, 『하회구곡(河回九曲)』, 하회, 풍산 류씨, 가문의식

## 1. 서론

‘하회(河回)’라는 명칭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과 관련이 깊다. 낙동강(洛東江)이 동쪽에서 흘러들어와 북으로 비스듬히 꺾이고, 이 물줄기가 마을을 휘감아 돌며 ‘물돌이동[河回]’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하회는 낙동강이 그 앞을 지나고 학가산(鶴駕山) 기슭이 그 주위를 감싸고 있어, 일찍이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다.<sup>1)</sup> 그 물과 산의 조화로운 모

습을 두고 ‘산태극(山太極) 수태극(水太極)’이라 하였으며, 물 위에 연꽃이 떠 있는 모습과 같다 하여 ‘연화부수(蓮花浮水)’라 하기도 하였다.

한편, 하회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시냇가 거주지 중에 나라의 제일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지만, 특히 그곳이 서애(西崖)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거주지라는 점에서도 귀하게 여겨졌다. 예컨대, 풍석(楓石) 서유구(徐有渠, 1764~1845)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상택지(相宅志)』에서, 하회를 류성룡이 살던 곳, 류성룡의 고택(古宅)이 있는 곳이라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다.<sup>2)</sup>

그런데, 이 하회 일대의 정착과 관련하여 ‘허씨 터전이요, 안씨 문전에 류씨 배판(排判)’이라는 속언에서 알 수 있듯이<sup>3)</sup>, 하회 일대는 처음부터 풍산 류씨들이 모여 사는 동성 반촌은 아니었다. 다만, 7세(世) 류종혜(柳從惠)가 하회에 터전을 잡은 이래 풍산 류씨들이 하회 일대에 입촌하여 점차 번성하게 되었고, 특히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1515~1573)과 그의 두 아들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 1539~1601), 류성룡이 등장하며 풍산 류씨는 향촌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하회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이고, 그곳에 세거하는 풍산 류씨들로 인해 그 이름을 드날렸다. 이러한 이유로 하회는 조선시대에 안동을 대표하는 명승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하회는 사람들에게 의해 다양한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sup>4)</sup>

1) 깊이 괴인 물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으며 산은 학가산에서 나누어진 것이다. 석벽이 강 위를 빙 둘러 있어 그 경치가 조용하고 빼어나게 아름답다. 위에는 옥연정(玉淵亭)과 작은 승암(僧菴)이 바위 사이에 띄엄띄엄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 진실로 뛰어난 경치이다[漢水周回於前 山自鶴駕分來 石壁紆回江上 雍容秀麗上有玉淵亭及小僧菴 點綴於岩石間 眞絕境也](이궁익, 『연려실기술 별집』 권 16, 『지리지전고(地理典故)』).

2) “西崖柳成龍之所宅也”(서유구, 『임원경제지』, 『상택지』).

3) ‘허씨 터전이요, 안씨 문전에 류씨 배판’은 곧, 허씨가 터전을 잡은 곳에 안씨가 들어섰고, 안씨의 문 앞에서 류씨들이 마을을 차려 번성하였다는 말이다(이세동, 『충효당 높은 마루, 안동 서애 류성룡 종가』, 경상북도·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1, 18쪽).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하외십육경(河隈十六景)』과 『하회구곡(河回九曲)』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하외십육경』은 류성룡의 맏손자인拙齋(拙齋) 류원지(柳元之, 1598~1674)가 하회의 16 경관을 제정하고 이를 양계(陽溪) 이하(李馥, 1626~1688)에게 시작(詩作)을 청한 작품이며, 『하회구곡』은 류운룡의 후손인 남옹(楠翁) 류건춘(柳建春, 1739~1807)이 지은 작품이다.

많은 조선조 선비들이 점과 선을 중심으로 문화공간을 만든 것처럼, 류원지와 류건춘은 각각 점과 선을 통해 그들의 세거지인 하회 일대를 형상화하였다.<sup>5)</sup> 이 두 작품은 하회 일대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여 이해한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되지만, 특히 그들이 하회를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그려내려는 시도가, 17-18세기 영남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에 대한 연

4) 일찍이 류성룡은 『옥연십영(玉淵十詠)』을 통해 하회의 경관을 형상화했으며, 그 이후 대표적으로 류원지가 하회 16경을 설정하고 이하에게 『하외십육경(河隈十六景)』을 창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에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 1644~1732), 병곡(屏谷) 권구(權渠, 1672~1749), 포헌(浦軒) 권덕수(權德秀, 1672~1759) 등이 16경을 읊었으며, 서호(西湖) 류성화(柳聖和, 1668~1748)는 『하회팔경(河回八景)』을 읊었다. 또, 류건춘과 월오헌(月梧軒) 류일춘(柳一春, 1724~1810) 등이 하회 일대에 구곡을 설정하여 『하회구곡(河回九曲)』을 읊었다. 이외에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낙동강의 경관을 그림으로 그려낸 『하외상하낙강일대도(河隈上下洛江一帶圖)』 등도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5) 많은 조선의 선비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물(外物)을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하였다. 대표적으로, 명명(命名) 의식과 같이 외물에 유가적 의미를 부여하며 성리학적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그것이다. 선비들은 주로 명명의식을 통해 일상공간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화를 구성하였다. 이 문화공간은 ‘점’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선’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때 점은 특정 사물에 대한 집약적 관심을 통해 문화공간을 이룬 경우이다. 예컨대, 집경시(集景詩)를 통해 경관을 재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은 계류(溪流) 즉, 물줄기를 따라 문화공간을 이룬 경우이다. 예컨대, 구곡(九曲)을 통해 경관을 재구성한 것이다(선비들의 문화공간 구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퇴계학논집』 1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 197-210쪽 내용 참고).

구는 미진한 편이다. 두 작품을 함께 다룬 논의는 전무하며, 각각의 작품 자체에 대한 연구도 소략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하외십육경』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하회 경관에 주목한 조경학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또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개괄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sup>6)</sup> 그리고 『하회구곡』에 관한 논의는 영남의 구곡문학 중 하나로 소개할 뿐, 이 역시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개괄적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였다.<sup>7)</sup>

이러한 기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본고는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의 공간 구성과 의미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sup>8)</sup> 이를 위하여 먼저 하회 일대를 형상화하고 있는 두 작품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할

6) 장태현·류한영, 『詩文을 통해 본 河回16景의 景觀特性에 關한 研究』, 『산업과학연구』 20,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2003, 53-60쪽; 류한영·장태현·신상섭, 『謙菴玉淵二精舍十六景記에 나타난 하회16경의 경관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 한국전통조경학회, 2004, 56-65쪽; 노재현·이현우, 『『河回十六景』과 『河隈洛江上下一帶圖』를 통해 본 하회16경의 경관상』,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 한국전통조경학회, 2013, 48-58쪽; 서수용, 『하회의 경관과 16경』, 『안동학연구』 16, 한국국학진흥원, 2017, 191-209쪽.

7) 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 II』,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2, 52-74쪽; 조유영, 『조선조 구곡가의 시가사적 전개양상』,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249쪽; 정우락, 『구곡원림의 양상과 경북 구곡의 문화사적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77, 한국유교학회, 2019, 371-407쪽.

한편, 일찍이 하회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회의 아름다운 경관, 하회에 내재된 전통성은 세계적으로 하회를 알리는 역할을 했던 만큼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하회별신굿, 하회탈 놀이, 선유줄불놀이와 같은 하회의 전통문화에 관한 연구, 하회 일대의 건축, 식생 등의 조경학적 연구, 하회의 관광 자원화, 콘텐츠 활성화, 브랜드 웹툰과 같은 지역 활성화 연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보더라도, 하회의 문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8) 여기에서 두 작품을 함께 다루는 이유는 『하외십육경』은 하회 일대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의 전범이 되었으며, 이러한 십육경의 영향으로 『하회구곡』이 창작되었다는 점에 있다. 구곡의 경우 류건춘의 작품뿐만 아니라 류상춘의 작품도 있지만, 비교했을 때 류건춘의 작품이 십육경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라는 점에서 류원지의 『하외십육경』, 류건춘의 『하회구곡』을 주목하고자 한다.

것이다. 이를 통해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에 하회 공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하회 일대의 형상화를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도출할 것인데, 이를 17-18세기의 영남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 2.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의 공간 구성

류원지의 『하외십육경』과 류건춘의 『하회구곡』은 하회 일대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하외십육경』은 이후 하회의 경관을 읊는 작품들의 전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하외십육경』은 이후에 등장하는 십육경시 뿐만 아니라, 하회를 읊은 구곡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림 같은 절벽 경치를 읊은 열여섯 시	畫壁風煙十六詩
결코 여기에 사족을 더하기는 어려우리라	蛇難添足水難披
어리석은 내가 뒤늦게 주자(朱子)의 구곡(九曲)을 좋아하여	愚聾晚好紫陽曲
감히 강가 거처를 작은 무이에 비겨보네	敢擬江居小武夷 <sup>9)</sup>

『하회구곡』 중 합곡(合曲)의 내용이다. 『하회구곡』은 구곡을 읊은 후, 끝에 ‘합곡’을 첨가한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류건춘은 구곡시를 창작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1구에서 말하는 열여섯 시가 바로 ‘하회십육경’을 가리키므로, 구곡시의 창작이 하회십육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하회십육경’은 류건춘의 부친인 류

9) 류건춘, 『남옹유고(楠翁遺稿)』, 『하회구곡』 합곡, 316쪽.

원문 및 해석은 『(國譯) 玉臯世稿』, 대보사, 2010.을 참조했다. 이하의 내용에서 작품을 제시할 때 류건춘, 『하회구곡』 몇곡. 으로 표시한다.

풍(柳豐, 1702~1772)의 『하회십육경』을 말하는데, 류풍의 『하회십육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하회십육경 작품들처럼 류원지의 『하외십육경』이 제시한 경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를 정리해보면, 류원지의 『하외십육경』은 이후 창작된 ‘하회십육경 류(類)’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 하회십육경이 다시 하회구곡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염두하면서 작품의 구조를 살펴보자.

먼저, 류원지는 『겸암 옥연 두 정자의 16경 기록(謙庵玉淵二精舍十六景記)』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마을의 승경(勝景)이 모두 강 북쪽 일대에 있어 이것을 보기 위해 정사가 지어졌다고 하며, 문장가에게 이 승경을 문학으로 나타내주길 구한다고 하였다.<sup>10)</sup> 그리고는 16 경치에 대한 시제(詩題)를 제시하는데, ‘1경: 입암에 불어 오르는 물[立巖晴漲]’, ‘2경: 마암에 부딪히는 성난 물결[馬巖怒濤]’, ‘3경: 화산에 달이 솟아오름[花岫湧月]’, ‘4경: 마늘봉에 걸린 구름[蒜峯宿雲]’, ‘5경: 눈이 개인 만송정 숲[松林霽雪]’, ‘6경: 울원에 밥 짓는 연기[栗園炊煙]’, ‘7경: 남산 봉우리의 서리 맞은 단풍[秀峯霜楓]’, ‘8경: 잔도로 지나가는 나그네[道棧行人]’, ‘9경: 남쪽 나무의 무지개다리[南浦虹橋]’, ‘10경: 원지봉의 신령한 비[遠峯靈雨]’, ‘11경: 물가 바위에서의 낚시[盤磯垂釣]’, ‘12경: 적벽에서 부르는 노랫소리[赤壁浩歌]’, ‘13경: 강촌 고기잡이배의 불빛[江村漁火]’, ‘14경: 나루터에 가로놓인 배[道頭橫舟]’, ‘15경: 수림에 내리는 노을[水林落霞]’, ‘16경: 모래톱에 앉은 기러기[平沙下雁]’이 그것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대상의 위치를 살펴보면, 주로 옥연정사(玉淵精舍), 겸암정사(謙菴精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대상들에 집약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류건춘의 『하회구곡』에 제시된 시제는, ‘1곡: 병산(屏山)’, ‘2곡:

10) 류원지, 『拙齋集』 권 2, 『謙庵, 玉淵二精舍十六景記』, “蓋村中勝賞 盡在江北一帶 攬而爲精舍之有矣 將欲求題品於當世之大手筆 以侈其勝 故略記其梗槩如右 其十六景名目具下”.

남포(南浦), '3곡: 수림(水林)', '4곡: 겸암정(謙巖亭)', '5곡: 만송(晩松)', '6곡: 옥연(玉淵)', '7곡: 도포(島浦)', '8곡: 화천(花川)', '9곡: 병암(屏巖)'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대상의 위치를 보면, 마치 하나의 선처럼 낙동강을 따라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개 우리나라에서 창작된 구곡 작품은 주자(朱子)의 『무이도가(武夷權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자의 구곡 설정 방식에 따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를 따르는 한편, 『하회구곡』처럼 물길을 따라 내려오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다. 특히 주자의 『무이도가』에서 물길을 거슬러 오르는 것은 성리학의 궁극적인 목적인 본성의 회복과 결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구곡시들이 물길을 거슬러 오르는 것을 택하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하회구곡』처럼 물길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소 특이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sup>11)</sup> 다만 그 변화는 주자 성리학에 배치되는 성격이 아니라, 위의 『하회구곡』 합곡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자의 것을 따르면서도 나름대로 개방적인 측면을 꾀하고자 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류건춘의 『하회구곡』은 전술한 합곡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서 창작된 하회십육경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주자의 『무이도가』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작품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하회십육경』이 집약적인 관심을 표현한 것과 달리, 그 지점들을 일정 부분 포함하면서 하회를 안고 있는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넓은 대상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처럼 『하회십육경』과 『하회구곡』은 각각 점의 구조와 선의 구조를

11) 이러한 구곡의 유형은 주자의 무이구곡 경영을 그대로 따른 '정격형 구곡원림'과 주자의 무이구곡 설정에 변화를 보여준 '변격형 구곡원림', 그리고 정격형 구곡원림과 변격형 구곡원림이 함께 설정된 '복합형 구곡원림'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정우락, 『대구지역의 구곡문화와 그 특징』, 『한민족어문학』 77, 한민족어문학회, 2017, 136-143쪽 내용 참고). 특히 변격형 구곡원림과 복합형 구곡원림은 중국의 구곡문화가 조선에 어떻게 토착화되고 변모되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조유영, 『조선조 구곡가의 시가사적 전개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40-43쪽 내용 참고).



통해 문화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하회라는 같은 공간을 다른 구조방식을 통해 구성해나가고 있는 것인데, 『하회구곡』은 『하외십육경』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서, 제시한 시제만 보더라도 두 작품은 일정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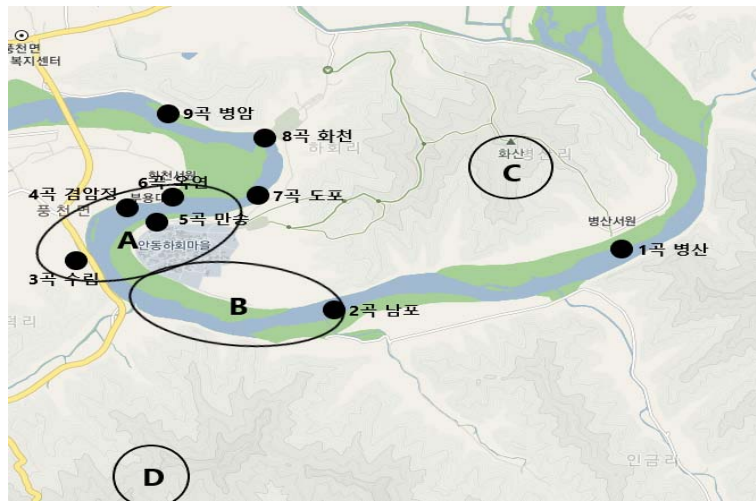


그림 1.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의 위치<sup>12)</sup>

A, B, C, D는 『하외십육경』의 공간을 대략 표시한 것이며, 각 점들은 『하회구곡』의 공간을 표시한 것이다. 먼저 『하외십육경』의 경우, A에는 1경, 2경, 5경, 8경, 11경, 12경, 14경, 15경이 포함되며, B에는 6경, 7경, 9경, 10경이 포함되며, C에는 3경이, D에는 4경이 포함된다. 이를 보면 A와 B의 구역에 류원지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류운룡이 건립한 겸암정사(謙菴精舍)와 류성룡이 건립한 옥연정사(玉淵精舍)

12) 위 지도는 <https://map.kakao.com/>을 이용하여,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의 공간을 표현한 것이다. 다만, 16개의 지점을 모두 찍지 않은 것은 지면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략의 지점들을 묶어 A, B, C, D로 표현하였다.

를 중심으로 문화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하회구곡』은 위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물줄기를 따라 9곡으로 설정되었다. 『하외십육경』이 집약적으로 몇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하회구곡』은 하회 전체를 감싸 안듯이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문화공간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에 나타난 하회의 모습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의 창작은 서로 영향관계가 있는 만큼,景物, 경관을 공유할 뿐 아니라, 하회 일대를 형상화해나가는 양상 또한 유사한 면이 많다. 두 작품에 나타나는 하회의 모습은 크게 일상공간에 대한 관심과 흥취 표출, 선조에 대한 존숭과 도학적 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1) 일상공간에 대한 관심과 흥취 표출

기본적으로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은 중국에서 유입된 산수문화 중 우리나라에 가장 유행했던 팔경, 구곡문화의 전통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팔경문화는 소강(瀟江)과 상강(湘江)이 만나는 아름다운 경관을 중심으로 창작된 소상팔경(瀟湘八景)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계승·변용되어왔다.<sup>13)</sup> 수려한 8경관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의 전통이 『하외십육경』에는 수려한 16경관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로 계승·변용된 것이 그것이다. 이는 『하외십육경』 중에 16경에 해당하는 ‘평사하안(平沙下雁)’의 “형양 땅 그리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 데, 소상강 찾는 길 잊지 않고 예대로 돌아가네[衡陽聲不斷 瀟湘眼還

13) 안장리, 『소상팔경 수용과 한국팔경시의 유행 양상』, 『한국문화와 예술』 13, 숭실대학교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2014, 44쪽.

慣.]”라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팔경시는 후대로 갈수록 경관의 일상화가 두드러졌다.<sup>14)</sup>

그리고 류건춘의 『하회구곡』의 경우, 전술하였듯이 주자의 『무이도가』를 전범으로 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경승에 설정되었다. 『하회구곡』은 수려한 경치를 사랑하는 하회가 곧 작가의 세거지였으므로, 일상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흥취를 표출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가) 강 건너 솟아있는 적벽 위에서	赤壁陟江上
바람타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네	臨風撥浩歌
노래 소리 천지를 가득 채우니	歌聲滿天地
만물이 내게 무슨 상관이리오	萬物於吾何
한번 노래하니 소리가 길게 퍼져가고	一歌聲正長
다시 노래할 마음이 거듭 일어나네	再歌心更多
노래는 끝나도 꿈처럼 아련하니	歌罷夢依然
신선의 옷자락이 스치고 지나간듯하네	羽衣飛相過
임술년의 가을은 어떠했는가	何如壬戌秋
부용대가 바로 소동파의 적벽일세	北岸今東坡 <sup>15)</sup>

(나) 강의 반쯤 맑은 그늘이 드리 묶인 배를 덮고	江半清陰覆繫船
삼동에 덮였던 눈이 봄 연기를 띠었네	三冬雪盖帶春烟
피꼬리와 늙은 학이 바람에 뒤섞이는데	流鶯老鶴渾風瑟
오곡이라 서리 든 단풍같은 적벽이 앞에 있네	五曲霜楓赤壁前 <sup>16)</sup>

(가)는 부용대에서 노래 부르며 그 경치를 읊은 것이다. 부용대는 하회마을 강 건너편에 자리한 절벽으로, 하회 일대 경관 중에서 으뜸으로

14) 안장리, 위의 논문, 49-52쪽.

15) 류원지·이하, 『하외십육경』, 적벽호가(赤壁浩歌).

원문 및 해석은 임재해 외 8인,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의 세계』, 민속원, 2012.를 참조했다. 이하의 내용에서 작품을 제시할 때, 류원지·이하, 『하외십육경』, 시제로 제시한다.

16) 류건춘, 『하회구곡』, 5곡 만송(晩松).

꼽힌다. 부용대에서 하회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으며, 그 아래를 흐르는 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유(船遊)를 즐기곤 하였다.<sup>17)</sup> 류원지는 이러한 부용대를 풍류의 공간으로 인식하며 위의 시를 지었다. 1구부터 8구까지 부용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며 흥이 일어나는 모습을 묘사한 것에서, 경관을 보고 느낀 흥취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구에 “만물이 내게 무슨 상관이리오[萬物於吾何]”라고 하며 풍류를 즐기며 무아지경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또, 9구와 10구에서 소동파가 본 적벽이 바로 부용대라고 하며, 소동파의 풍류를 자신도 이 부용대에서 즐길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였다.<sup>18)</sup> 즉, 부용대라는 일상공간을 바라보며 느낀 흥취를, 노래 부르는 행위와 소동파와의 동일시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류운룡이 마을 강가에 심었다고 전해지는 만송정(晩松亭)을 바라보며 읊은 것이다. 류건춘은 강을 반쯤 덮을 만큼 높이 솟은 소나무들을 바라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소나무가 숲을 이룰 정도로 규모가 큰 것도 장관이지만, 겨울과 봄의 사이에 눈이 녹으며 소나무의 푸른빛이 도드라지는 모습은 더욱 아름다웠을 것이다.<sup>19)</sup> 류건춘은 눈이 점차 녹으며 봄기운이 일렁이는 때의 소나무 숲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주위를 날아다니는 새들의 모습과 건너편에 적벽처럼 붉은빛을 띠는 부용대를 바라보았던 것 같다. 그는 이러한 자연공간을 바라보며 느낀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흥취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하회십육경』과 『하회구곡』에서 주목한 대상은 일상공간에 놓

17) 임재해 외 8인, 위의 책, 129-130쪽.

18) 시제에 부용대를 소동파가 배를 띄우고 놀았다는 적벽(赤壁)과 동일시하는 것도 작가가 소동파와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 『하회십육경』에서 ‘송림제설’이라 하여 눈이 개인 뒤의 소나무 숲을 주목하였다. 생기를 잃은 다른 초목들과 달리 소나무는 검푸른 수엽에 옥띠를 두르고 잎에는 백발처럼 눈이 덮여있으며, 일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하여 시를 읊었다.

인 자연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상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가) 저 건너 벼랑에 걸린 잔도에	道棧懸郭外
몇 사람 지나가는 것 분명히 보이네	歷歷數行人
가는 곳을 알 수 없으나	不知遠近向
왕래하는 사람 꾸준히 보이네	但見往來頻
가랑비 오면 도롱이 입은 사람	細雨或披蓑
석양엔 땀감 진 사람도 가네	斜陽時負薪
길이 위태로우니 어깨를 쉴 수 없고	路危無息肩
그윽한 강가, 나무를 묻는 사람 별로 없네	江幽稀問津
조용히 앉아 바쁘고 한가함 견주어보니	靜坐較閑忙
할 일 없는 사람 몸 편안한 줄 알겠네	無營則安身 <sup>20)</sup>

(나) 강 모서리의 한 조각 외로운 섬은 푸르네	一片江隅孤島青
지나가는 나그네 그림자가 백사장에 길구나	飄飄行客影長汀
높은 가을 노란 숲은 손바닥처럼 평평한데	高秋黃林平如掌
칠곡이라 농부들 노랫소리 원근에 들리네.	七曲農謠遠近聽 <sup>21)</sup>

(가)는 상봉정(翔鳳亭) 벼랑 쪽에 위치한 험준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읊은 것이다.<sup>22)</sup> 잔도는 하회 마을 건너편에 위치한 길로, 오가는 중에 앉아서 쉬지 못할 만큼 험준하나 평소에 사람들이 자주 오갔던 길이다. 이는 1구에서 6구까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문득 바라보아도 오가는 사람들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거나, 날씨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곳이 일상적인 공간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사람

20) 류원지·이하, 『하외십육경』, 도잔행인(道棧行人).

21) 류건춘, 『하회구곡』, 7곡 도포(島浦).

22) 상봉정은 일찍이 류성룡이 그 벼랑을 상봉대(翔鳳臺)라 부른 데서 따온 이름으로, 회당(梅堂) 류세철(柳世哲, 1627~1681)에 의해 1670년에 건립되었다(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상봉정”, 2021. 12. 30, [https://search.cha.go.kr/srch\\_org/search/search\\_top.jsp](https://search.cha.go.kr/srch_org/search/search_top.jsp)).

들을 바라본 후에는 자신의 소박한 일상으로부터 느끼는 즐거움을 표출한다. 9구와 10구의 내용이 그것이다. 잔도는 험난하여 오가는 사람들이 멈춰 설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앉아서 쉬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채 목적지로 바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잔도 주변은 길을 묻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고요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이에 류원지는 바쁜 사람들과 고요한 잔도의 대조적인 모습을 견주어보는데, 끝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마 자신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즉, 길(잔도)을 오가는 사람들의 바쁜 상황과 정작 고요한 길의 분위기를 바라보며 자신이 느낀 흥취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현재는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지만, 예전에 낙동강 안에 있었던 섬인 도포(島浦)를 바라보며 읊은 것이다.<sup>23)</sup> 강 중간에 홀로 외롭게 떠 있는 섬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섬 나루터에 섬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나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 듯하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가을의 노란 숲을 바라보는데, 이어서 가을철 농부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고 하였으니 노란 숲은 누렇게 벼가 익은 모습을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가을철 수확이 한창인 섬을 바라보며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섬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루터를 오가는 사람들, 노래를 부르며 수확하는 농부들의 모습과 같이 사람들의 생활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은 절벽(부용대), 숲(만송정)과 같이 자연물 자체에 주목하여 시적 상상력을 펼치기도 했지만, 벼랑길(잔도), 섬(도포)과 같이 자연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위, 상황 등에 주목하여 시적 상상력을 펼치기도 했다. 두 작품은 모두 하회를 세거지로 둔 작가들에 의해 창작되었기에, 일상공간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흥취 표출이 잘 드러날 수 있었다. 작가가 자신의 일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회 일대는 경승지로

23) 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 II』,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2, 69쪽.

서 작가의 시심을 자극할 만했기 때문에, 두 작품 모두 이처럼 경관의 일상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 2) 선조에 대한 존송과 도학적 공간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은 각 작품의 창작의도를 살필 수 있는 『겸암옥연 두 정자의 16경 기록』과 합곡의 내용을 엮어냈을 때, 류운룡, 류성룡과 같은 선조에 대한 존송이 두드러지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즉, 두 작품 모두 수려한 경치를 주목하고 이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동시에 선조와 관계가 깊은 곳들을 주목한 것이다.

- |                        |                      |
|------------------------|----------------------|
| (가) 물 가운데 선 두 바위       | 巖岩入江中                |
| 예로부터 큰물 소리 듣는데         | 終古聞江漲                |
| 큰물에 잠기지도 않고 서 있고       | 漲立岩不沒                |
| 큰물에 탈나지도 않고 엎드려있네      | 漲伏岩無恙                |
| 마치 큰사람이 버티어 서 있는 것처럼   | 有如特立人                |
| 풍파에도 그 자리 지키고 있는데      | 風波任所伏                |
| 한 손으로 전도된 물결을 돌이키고     | 隻手回倒瀾                |
| 온갖 냇물을 막아서 동쪽으로 가게 하였네 | 百川聽東障                |
| 누가 능히 도끼로 깎을 수 있겠는가    | 豈斯斧鑿能                |
| 참으로 위대하도다! 우러를만하구나     | 偉哉真可仰 <sup>24)</sup> |
- 
- |                             |                        |
|-----------------------------|------------------------|
| (나) 낙동강 근원 있는 물이 동쪽으로부터 흐르고 | 洛上源流出自東                |
| 병풍바위의 가파른 절벽이 그 안을 둘러쌌네     | 巖屏峭壁抱其中                |
| 구름 낀 병산에 서원 지으니 강이 섬처럼 두르고  | 雲屏作院江環島                |
| 일곡이라 이름난 터에 버드나무 나부끼네       | 一曲名基柳樹風 <sup>25)</sup> |

(가)는 겸암정사 앞쪽에 위치한 입암을 바라보며 읊은 것이다. 입암에

24) 류원지 · 이하, 『하외십육경』, 입암청창(立巖晴漲).

25) 류건춘, 『하회구곡』, 1곡 병산(屏山).

내포된 의미는 다양하다. 먼저 입암이라는 호를 지녔던 류중영(柳仲郢, 1515~1573)을 떠올릴 수 있다. 류중영은 류운룡, 류성룡 형제의 아버지로,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과 각별한 교유관계를 쌓으며 이황의 학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 학문의 부흥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 자신의 두 아들을 이황의 문하로 보내 훗날 퇴계학파의 기둥이 되는 학자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두 아들에 의해 가문을 중심으로 한 학문의 전통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류중영은 가학(家學)의 문호를 연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sup>26)</sup> 한편, 입암은 자세히 보면 큰 바위와 작은 바위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마을 사람들은 ‘형제바위’라 일컬으며 류운룡과 류성룡 형제의 우애를 상징한다고 하기도 하였다.<sup>27)</sup> 이렇게 보면 입암은 결국 류중영, 류운룡, 류성룡 3 부자(父子)를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시의 내용을 보면, 1구부터 6구까지는 바위를 사람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류원지는 커다란 바위가 낙동강에 잠기지 않고 탈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서 류중영, 류운룡, 류성룡 같은 큰 선현의 모습을 떠올린 듯하다. 이는 이어서 7구와 8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한유(韓愈)의 『진학해(進學解)』에, “온갖 냇물을 막아 동쪽으로 흐르게 하고, 이미 엎어진 데서 거센 물결을 되돌렸다.[障百川而東之 廻狂瀾於旣倒]”라는 구절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에서 백천(百川)은 유학(儒學)이 아닌 이단의 가르침으로, 결국 이단의 설을 막고 유학의 가르침을 다시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류원지는 유학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풍산 류씨 나아가 영남의 학문을 확장시켰던 3 부자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강가의 바위를 통해 류중영, 류운룡, 류성룡을 투영시킴으로써 그 공간을 도학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된 곳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6) 안병걸, 『풍산류씨 가문의 학문 전통과 가학 계승』,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166-167쪽.

27) 입재해 외 8인, 위의 책, 137쪽.



(나)는 병산서원 건너편에 병풍처럼 펼쳐진 병산(屏山)에 대해 읊은 것이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시 함백산(咸白山)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다가 안동의 동쪽 지점에서 반변천(半邊川)과 합수한다. 그 물줄기는 서남쪽으로 굽이쳐 풍산의 하회 일대에 이르러 휘돌이를 시작하는데, 이 휘돌이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병산 영역이다.<sup>28)</sup> 류건춘은 병산 영역으로부터 낙동강이 흘러오는 것을 보며, 가문 나아가 학문의 흐름을 떠올렸다. 이는 3구와 4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3구에서 말하는 서원은 가문의 서당인 풍악서당(豊岳書堂)을 전신으로 한 병산서원(屏山書院)을 가리킨다. 1607년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 등이 류성룡을 기리기 위해 존덕사(尊德祠)를 창건하고 병산서원에 위패를 봉안하였다. 이후 류성룡의 셋째 아들 수암(修巖) 류진(柳珍, 1582~1635)이 추가로 배향되었다. 즉, 병산서원은 학문과 덕행이 뛰어났던 선조들을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더욱이 4구에서 이곳에 버드나무[柳]가 나부낀다고 하였으니, 풍산 류씨 가문을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류건춘은 낙동강의 원류가 병산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가문의 원류가 병산서원으로부터 내려오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하외십육경』의 ‘입암청창’과 『하회구곡』의 ‘병산’은 작품의 시작점으로서, 원두(源頭)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작품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시의 내용을 보면, 가문의 학문, 나아가 지역의 학문의 부흥에 일조한 류중영, 류운룡, 류성룡 등을 대상에 투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 모두 선조를 향한 존숭이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두 작품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하외십육경』보다 『하회구곡』이 도학적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하외십육경』은 팔경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아 수려한 경관을 바라보고 묘사하는 데 비중을 두지만, 『하회구곡』은 구곡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아 수려한 경관을 주목하기는 하나 성리학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기

28) 임재해 외 8인, 위의 책, 28쪽.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하외십육경』의 내용을 보면 1경에서 류중영, 류운룡, 류성룡 3 부자를 투영시켜 선조를 향한 존숭과 도학적 공간을 형상화하고, 이후 몇 경관에서도 부분적으로 도학적인 공간을 형상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예컨대, 15경 수립낙하(水林落霞)에 이르러 “겸암이 남긴 자취 밟아보니 부친이 물린 일잘도 이어 다스렸네. 정자에서 일어나 다섯 발자국 이내에 새로운 편액이 물가에 비치네. 강산은 연하여 주인이 있어 빼어난 경치를 자랑스럽게 일구었구나[謙菴有遺燭 骨構傳克家 起亭五步內 新扁照水涯 江山連有主 勝事堪成誇]”라는 구절이 그러하다.

서원을 안은 맑은 물 백사장을 둘러싸니	抱社清流繞白沙
산은 화산이라 하고 산 아래 물은 화천이라 하네	花名山下水名花
명륜당 높은 곳에 청금의 선비들 모이니	倫堂高處青襟集
팔곡이라 글을 읽는 소리 북쪽 물가에 들리네.	八曲絃聲動北涯 <sup>29)</sup>

위의 시는 『하회구곡』 8곡인 화천(花川)으로, 화천은 화산(花山) 앞을 지나는 시내를 말한다. 류건춘은 화천 쪽에 세워진 화천서원(花川書院)을 바라보고 있는데, 화천서원은 1786년 지방 유림의 공의로 류운룡, 류원지, 동리(東籬) 김윤안(金允安, 1560~1622)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 류운룡과 류원지는 그의 선조이며 김윤안은 류성룡의 문인이니, 화천서원 역시 선조의 학업과 덕행에 대한 흠모를 드러내는 공간으로서 형상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은 선조들을 시적 대상에 투영 시킴으로써 선조에 대한 존모를 다양하게 형상화했으며, 선조들의 학문적 업적을 강조하며 도학적인 공간을 그려내었다. 특히,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작품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1경과 1곡에 모두 선조에 대한 강한 존숭을 드러내며, 작품의 지향점이 단순히 수려한 경관을 누리는 것만이

29) 류건춘, 『하회구곡』, 8곡 화천(花川).

아님을 보여주었다. 또, 상대적으로 『하외십육경』보다 『하회구곡』이 도학적 공간을 형성하는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면모는 팔경 문학과 구곡문학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두 작품 모두 창작의도나 내용을 살폈을 때 하회 일대를 선조에 대한 존숭과 함께 도학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이 지닌 의미 - 가문의식의 구현과 확장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은 하회라는 일상적 공간에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 문학적 상상력에는 점으로서 구성되는 팔경문화의 전통과 선으로서 구성되는 구곡문화의 전통이 자리하였다. 그리하여 두 작품은 하회라는 일상적인 공간에 주목하여 흥취를 구현하는 한편, 그 공간에 얽힌 선조들을 떠올리고 존모하며 도학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작가의 하회 공간에 대한 인식이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풍산 류씨들에 의한 일련의 문학 창작 행위를 ‘가문의식의 구현과 확장’의 측면에서 이해해보고자 한다.

류원지, 류건춘에게 있어 하회는 세거지로서 아주 일상적인 공간임이 틀림없다. 작가에게 있어 일상공간은 흔한 문학 소재이지만, 작가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일상적인 공간일지라도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두 작가의 하회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당대 영남 지식인으로서 직면한 현실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보고자 한다.

16세기 이후로 조선은 외적으로는 전쟁을 경험하고, 내적으로는 당파(黨派) 간의 극심한 대립이 일어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중앙과 향촌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향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재지 사족들은 전란으로 흐트러진 향촌 질서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러한 향촌 질서의 복구는 재지 사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많은 가문이 복구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들 중 하나가 바로 풍산 류씨이다. 이렇게 향촌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한 후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중앙과 향촌의 분리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1623년 인조반정은 영남 남인들을 정계에서 더욱 멀어지게 했다. 이에 따라 영남 지식인들은 향촌 내 가문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글을 보자.

나라 안의 장서(莊墅) 중에 이름답기로는 오직 영남(嶺南)이 최고이다. 그러므로 사대부가 당시에 액(陔)을 당한 지가 수백 년이 되었으나, 그 존귀하고 부유함은 쇠하지 않았다. 그들의 풍속은 가문마다 각각 한 조상을 받들어서 한 전장(田莊)을 점유하여 일족이 머물러서 흩어지지 않는데, 이 때문에 조상의 업적을 견고하게 유지하여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sup>30)</sup>

이 글은 『택리지(擇里志)』에 대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63)의 발문이다. 영남 지역의 사대부들이 가문의 조상을 내세워 땅을 점유하고 동성마을을 이루어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그는 영남의 많은 문중을 예로 꼽았는데, 류성룡을 중심으로 하회를 점유한 풍산 류씨도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향촌 사회에서는 문중이 기득권을 강조하기 위해 선조의 업적이나 학맥을 강조하는 것이

30) 丁若鏞, 『與猶堂全書』 권 14, 『跋擇里志』, “國中莊墅之美 唯嶺南爲最 故士大夫陔於時數百年 而其尊富不衰 其俗家各戴一祖占一莊 族居而不散處 所以維持鞏固而根本不拔也”.

매우 유효한 수단이었다. 예컨대 이황 사후 그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학파’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나, 종족(宗族)의 결속과 연대를 통해 가문의식을 강화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17세기 후반 이후부터 풍산 류씨는 다른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17세기 이후 벌어진 퇴계학과 내의 고제(高弟)로서의 입지 문제가 그것이다. 사실 17세기 초반까지 풍산 류씨는 안동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퇴계학과 내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류성룡이 이황 사후, 이황의 고제로 여겨지며 영남 지식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다. 류성룡은 퇴계학과 내에서도 안동권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그와 함께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1538~1593) 역시 이황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로서 안동권에서 칭송되었다. 이러한 안동권 내의 판도는 17세기 초반까지는 류성룡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서애계’가 김성일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학봉계’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점차 서애계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등장하지 못했고, 특히 학봉계의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이 퇴계학과 내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17세기 후반부터는 학봉계가 퇴계학파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sup>31)</sup>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하외십육경』은 ‘가문의식’을 구현하기 위한 내적 원리에 의해 창작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작가인 류원지는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소실된 종가를 중수(重修)하고, 선현들의 충효(忠孝)의 가풍을 계승하고자 했으며, 풍산 류씨 가문만의 의례(儀禮)를 정비하는 등 풍산 류씨 문중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

31) 김명자, 『조선 후기 안동 하회의 풍산류씨 문중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212-217쪽.

32) ‘가문의식’은 가정·문중적 측면에서 봉선(奉先)을 통해 가문의 돈목을 도모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가문의 주요 선조들이 이룩한 업적을 널리 현창하고자 하는 의식이다. 이러한 가문의식은 현조(顯祖)에 대한 봉선의식(奉先意識)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정우락, 『18세기 후반 영남문단의 일 경향: 지애 정위의 가문의식』, 『남명학』 15, 남명학연구원, 2010, 456쪽의 각주 3 내용 참고).

다.<sup>33)</sup> 그는 류성룡의 맏손자로서 자가문(自家門)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자신들의 거주지이자 훌륭한 선조들의 정신과 학문이 남아있는 ‘하회’라는 일상적인 공간을 주목했던 것이다.

이는 작품의 첫머리인 1경 입암청장에 류중영, 류운룡, 류성룡과 같은 훌륭한 조상을 내세우고 그들의 업적을 읊는 것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전술하였듯이, 이 세 인물은 영남에서 풍산 류씨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영남 지식인의 구심점이라 할 만한 이황의 학문을 계승하고, 한편으로는 퇴계학파를 가학(家學)에 접목시키며 풍산 류씨를 영남의 주요 가문으로 나아가게끔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류원지가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선조에 대한 존승을 바탕으로 하회라는 일상적인 공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후손으로서의 가문의식을 구현하는 태도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류건춘은 류원지가 당대 느꼈던 위기의식을 더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17세기 후반 이후로 퇴계학과 내에서 서애계보다 학봉계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류건춘의 『하회구곡』 역시 선조가 활동했던 공간들을 중심으로 후손으로서의 숭조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난다. 특히 『하회구곡』은 『하외십육경』보다 후손으로서의 가문의식이 더욱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가문의식과 학맥을 결합시킨 것이 그것이다. 1곡 병산에서 류성룡과 류진을, 4곡 겸암정에서 류운룡을, 8곡 화천에서 류운룡, 류원지, 김윤안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들은 풍산 류씨의 현달한 선조이며, 그 선조의 학문을 이어받은 인물들이다. 비록 학맥의 중심인 이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합곡에서 주자의 무이구곡을 닮고자 구곡을 읊는다고 하였으니, 주자로부터 이어진 성리학적 도맥이 자신의 가문, 나아가 퇴계학파의 한 축인 서애계까지

33) 김명자, 『16~17세기 하회 풍산류씨가의 중법 수용 과정』, 『대구사학』 96, 대구사학, 2009, 73-79쪽; 문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계중심의 혈연집단이 조직되어야 하며, 그들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훌륭한 조상을 중심으로 결집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김명자, 위의 논문, 1-2쪽.)

뻗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류원지와 류건춘은 문중 내에서의 위치나 시대는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가문의 위상을 드높여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은 선조를 떠올릴만한 공간들을 중심으로 가문의식을 구현하고 또 확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풍산 류씨뿐만 아니라 17-18세기의 영남 지식인들이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서,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은 당대 영남 지역의 사회·문화적 일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 5. 결론

본고는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의 공간 형상과 의미를 통해 17-18세기 영남 지역의 사회·문화적 일경향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풍산 류씨들이 자신들의 세거지인 하회 일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문학작품 내 하회 일대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학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기본적으로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의 창작이 서로 영향 관계가 있는 만큼, 그 시제를 비교했을 때, 두 작품은 유사한 대상을 바라보기도

34) 한편, 17세기에는 집경시, 18세기에는 구곡시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영남 지역의 사회·문화적 일경향을 읽어낼 수 있다. 주자의 『무이도가』는 주자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일찍이 많은 문인들에게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남 지역에서는 거의 18세기 후반까지 구곡 경영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는 추측컨대, 영남의 대유(大儒)인 이황이 몸소 구곡을 경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으로서 시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이 되면 구곡을 경영하고 구곡시를 짓는 행위가 유행처럼 나타나는데, 『하회구곡』은 이러한 문화적 흐름 속에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였으나 『하회구곡』이 하회 일대를 보다 넓게 바라보고 문학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작품에서 하회의 모습은 크게 일상공간에 대한 관심과 흥취 표출, 선조에 대한 존숭과 도학적 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단순히 자연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상까지도 시적 대상에 포함하고 있었으며, 경관의 일상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특히 각 작품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1경과 1곡의 내용을 통해 이들이 선조의 학업과 덕행을 강조하며 도학적인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하회 형상화를 바탕으로 두 작품이 지닌 의미를 17-18세기 영남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결부시켜 도출하였다. 그리하여 영남의 정치적 소외와 풍산 류씨의 입지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영남 지식인 그 중에서도 풍산 류씨들이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으며, 그 작품의 이면에는 가문의식을 구현하고 또 학맥을 결합시킴으로써 가문의식을 확장하려는 작가의 창작의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전술하였듯이 『하회십육경』과 『하회구곡』은 작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가 소략한 편이다. 이에 본고는 두 작품을 통해 17-18세기의 영남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으나 후속 과제로서 주목할 몇 가지가 있다. 먼저 『하회십육경』과 관련하여 류원지의 작품을 전범으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집경시를 창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개 16개의 시제를 그대로 수용하되, 시제의 순서를 바꾸며 자신만의 집경시를 창작하였다. 『하회십육경』들을 작가에 따라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집경시들을 통해 하회 공간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현재 『하회구곡』은 류건춘의 작품이 많이 알려져있지만, 월오헌(月梧軒) 류일춘(柳一春, 1724~1810)의 『하회구곡』도 있다. 이 작품은 임재해 외,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의 세계』,



민속원, 2012, 508-526쪽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이를 진지하게 연구한 것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해 안동의 지역문학, 나아가 영남의 지역문학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 II』,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2.
- 김명자, 「조선후기 안동 하회의 풍산류씨 문중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9, 1-292쪽.
- 김명자, 「16-17세기 하회 풍산류씨가의 종법 수용 과정」, 『대구사학』 96, 대구사학, 2009, 59-83쪽.
- 류후광, 『(國譯) 玉臯世稿』, 대보사, 2010.
- 서수용, 「하회의 경관과 16경」, 『안동학연구』 16, 한국국학진흥원, 2017, 191-209쪽.
- 서유구, 『임원경제지』.
- 안병걸, 「풍산류씨 가문의 학문 전통과 가학 계승」,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155-188쪽.
- 안장리, 「소상팔경 수용과 한국팔경시의 유행 양상」, 『한국문학과 예술』 13,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4, 43-73쪽.
- 이궁익, 『연려실기술 별집』.
- 이세동, 『충효당 높은 마루, 안동 서애 류성룡 종가』, 경상북도·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1.
- 임재해 외 8인,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의 세계』, 민속원, 2012.
- 이종호, 「한국 구곡 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안동학연구』 10, 한국국학진흥원, 2011, 9-65쪽.
- 정우락, 「18세기 후반 영남문단의 일 경향: 지애 정위의 가문의식」, 『남명학』 15, 남명학연구원, 2010, 452-510쪽.
- 정우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식과 문화공간 만들기」, 『퇴계학논집』 15,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 177-217쪽.
- 정우락, 「대구지역의 구곡문화와 그 특징」, 『한민족어문학』 77호, 한민족어문학회, 2017, 121-149쪽.

『하외십육경(河隈十六景)』과 『하회구곡(河回九曲)』의 공간 형상과 그 의미 91

조유영, 『조선조 구곡가의 시가사적 전개양상』,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249쪽.

<Abstract>

The shape and meaning of  
『Hahwaesipyukgyeong(河隈十六景)』 and  
『Hahoegugok(河回九曲)』

Shin, So-Yun\*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social and cultural trends of the Yeongnam region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through the spatial shape and meaning of 『Hahwaesipyukgyeong(河隈十六景)』 and 『Hahoegugok(河回九曲)』. The two works are literary embodiments of the Hahoe area through dots and lines, respectively, and are representative works that give various meanings to the Hahoe area. Moreover, these works not only embody Hahoe as a cultural space. It is noteworthy that it shows a series of efforts made by Yeongnam intellectuals in the 17th-18th century, especially Pungsan Ryu clan, to solve the problems faced by the time.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Hahwaesipyukgyeong』 and 『Hahoegugok』 and examined how the two works construct the same space through different structural methods, and how Hahoe area appears in the actual contents of the work. 『Hahoegugok』 is a work that was greatly influenced by 『Hahwaesipyukgyeong』, as there is such an influence relationship, the two works show many similar appearances in shaping Hahoe. This paper examined this by dividing it into an interest in everyday space, an expression of excitement, and

---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 ascetic and Taoistic space for ancestors.

In addition, discussions were conducted by linking the meaning of these works with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the Yeongnam region of the time. In a situation where Yeongnam's political alienation and the need to strengthen the position of Pungsan Ryu Clan are required, Pungsan Ryu Clan among Yeongnam intellectuals created such work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time. It was examined that behind the work, there is a creative consciousness to expand family consciousness by implementing family consciousness and combining academic background.

Key Words: 『Hahwaesipyukgyeong(河隈十六景)』, 『Hahoegugok(河回九曲)』, Hahoe, Pungsan Ryu clan(豊山柳氏), Family consciousness

■ 논문접수 : 2021년 12월 10일

■ 심사완료 : 2021년 12월 20일

■ 게재확정 : 2021년 12월 25일

